

‘재택’ 줄이는 산업계… 거점 오피스로 효율성·집중도 높인다

상위 50대 기업 재택근무 조사
응답 기업 31곳 중 58% 시행
사내 자율·유연 근무제 운영
원격근무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삼성전자 거점 오피스인 서초 딜라이트.

코로나19로 집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다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부터 국내 기업들까지 재택근무(원격근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점 오피스를 운영하거나 근무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며 업무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매출 상위 50대 기업의 재택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31곳 중 58.1%가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를 미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41.9%로 조사됐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를 시행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38.7%에 달했다.

실제 한화그룹은 올초 정부가 엔데믹을 선언한 후 정보통신 부문 등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폐지했다. 현대차 그룹도 코로나 19 확산과 함께 도입했던 재택근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대차는 계동과 대방, 동탄, 삼산, 성내, 안양, 원효로, 의와, 판교 등 총 9곳에서

거점 오피스를 운영하며 근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019년 10월 타운홀 미팅에서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효율성”이라며 “대면보고 문화는 바꾸려고 노력했으며 마주 앉아 설명하고 보고하는 것을 제발 하지 말자, 효율적이면 서 빠르고 뜻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구하라”고 업무 효율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삼성도 모성보호(임신상태, 출산 직후 등) 인력에 대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최소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삼성은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무 문화를 위해 사외 거점 오피스와 사내 자율 근무존을 운영한다. 삼성전자의 사내외 유연근무공간 ‘딜라이트’는 ▲서초사옥 ▲대구 ABL타워 등 사외 거점 오피스 2개소와 ▲디지털시티(수원) ▲서울R&D캠퍼스(우면) ▲스마트시티(구미) ▲그린시티(광주) 등사

업장 내 자율 근무존 4개소를 포함해 총 6개소로 운영되고 있다.

SK는 재택근무를 최소화하면서 계열사별로 직무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SK, SK이노베이션에서는 직원이 매일 아침 일할 좌석을 예약해 사용하는 ‘공유 좌석제’를 시행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출·퇴근 소요 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신도립, 일산, 분당 등에 거점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월 1회 주 4일제를 시행하는 ‘해피프라이데이’ 제도를 도입했다.

포스코는 근로시간과 장소, 복장까지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포스코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원격근무시스템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구성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는 서울지역 장거리 출퇴근 직원들의 피로도를 저감시켜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장점이 확인된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With POSCO Work Station’ 거점오피스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여의도파크원타워, 종로 금세기빌딩, 판교 포스코DX사옥, 송도 포스코타워 4개 지역에 위치한 ‘With POSCO Work Station’ 은 1인용

몰입좌석, 다인용 라운지, 회의실 등 다양한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직무 특성에 따라 원거리 근무가 가능한 포항·광양 직원들도 거점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의 자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코어 근무 시간 없이 8~17시중 하루 최소 4시간만 근무하면 되도록 했다. 포스코는 올해 7월부터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전 직원 자율복장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재택근무는 효율적인 부분이 있지만 사내 소통이나 근태 관리 등에 한계도 있다”며 “대부분 기업들이 거점 오피스 등을 활용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문화를 확대해 임직원 만족도와 업무 능률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통업계 ‘부산 유치’ 힘 보태기 포스터·현수막 등 막판 총력전

식품·백화점·대형마트 움직임 활발
부산시 마스코트 ‘부기’ 활용 홍보
과자·케이크에 캐릭터 넣어 응원

오는 28일 ‘2030 세계 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부산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식품, 백화점, 대형마트 등 국내 유통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 국내 유통기업들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부산 엑스포 응원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섰다.

구전효과가 뛰어난 국내 소비자들의 강점을 내세워 부산 유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롯데가 가장 적극적이다. 롯데는 유통 관련 전 계열사가 부산 유치 염원에 뛰어들었다.

구체적으로 롯데웰푸드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원하며 ‘롯데 빼빼로와 함께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해주세요’ 랫글 이벤트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롯데웰푸드의 공식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랫글로 부산엑스포 유치 공식계정을 태그하고 응원 메시지를 달면 추첨을 통해 총 111명에게 빼빼로를 증정한다.

롯데 계열사인 세븐일레븐도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탠다.

세븐일레븐은 보다 많은 고객들과 함께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응원하기 위해 11월 중 고객이 편의점을 가장 많이 찾고 봄비는 빼빼로데이 시즌에 맞춰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응원 메시지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세븐일레븐은 이달 초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 기원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를 전국 1만4000여점에 배포해 점포 외부에 부착토록 했다. 포스터에는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지원하는 응원 문구와 부산 대표 캐릭터인 갈매기 ‘부기’가 손으로 하트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식품업계에서는 파리바게트가 색다른 방법으로 부산 유치를 지원한다. SPC그룹의 파리바게트는 부산시와 손잡고 신제품케이크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에 나선다.

파리바게트는 부산시 마스코트인 ‘부기’ 캐릭터를 활용한 ‘부기 케이크’를 한정 출시한다. 부산과 경남지역 소재 파리바게트 매장 400여곳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SPC와 부산시는 소비자 반응을 살펴본 후 향후 전국 판매까지 고려해보겠다는 계획이다. ‘부기’ 케이크는 부산의 여름 바다에 빠진 부기를 모티브로 만든 초코 케이크다.

/최빛나 기자 vitna@

사랑하는 가족에게 힘이 되기 위해

치매와 싸우는 당신 곁에서 언제나 힘을 주는 사람들,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한화생명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한화생명 The걱정없는 치매보험(무배당)

한화생명 The걱정없는 치매보험(무배당)

☎ 080.365.6363

치매 보장계약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 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택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및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www.hanwhalife.com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3-04104호 (2023-09-05 ~ 2024-09-04) 준법감사인확인필 CS 23-08-103

